

“지방선거 올인” 평화당 선대위체제 전환

조배숙·장병완 공동위원장
바른미래 비례 3인 합류 눈길
핵심승부처 5곳 전략공천 관건

민주평화당은 18일 5개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낮은 지지율에 고전했던 분위기를 다잡고, 인물난을 겪어온 호남 등 핵심지역 광역단체의 후보 공천도 윤곽을 잡아갈 계획이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대위 ‘민생캠프’ 출범식을 열었다. 또 선거대책본부 인선도 함께 발표했다.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정인화 사무총장은 중앙선대본부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정동영,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정배, 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은 유성엽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권노갑 고문단장, 정대철 선거지원단장 등 동교동계 원로들도 선대위에 힘을 실었다.

이밖에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발이 묶였지만 평화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비례대표 의원 3인은 각각 전략기획본부장, 공보단장, 정책공약본부장을 맡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경진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지방선거가 56일 남은 오늘 평화당이 여타 정당보다 가장 먼저 선대위를 출범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번 6·13 지방선거가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했다. 이어 “평화당은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이후 존립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 하는 상황”이라면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투철하게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6·1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배숙 대표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국가 품격이 올라가고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현재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 불법적 댓글 지원을 받았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갑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며, 군산 GM대우 공장이 폐쇄 수순을 밟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큰 틀에서 잘하고 있을지라도,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평화당이 해야 한다”며 “민생·민주·평화·개혁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걸 던지자”고 호소했다.

평화당이 의욕적으로 선대위를 출범하며 지방선거 필승 결의를 다졌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당의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서조차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고전하며 시도지사 후보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광주, 전남·북 등 광역단체 3곳과 함께 광주 서구갑,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보선 등 핵심승부처 5곳에 대한 공천을 신속히 이뤄내는 것이 선거전 초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후보진영이 짜지던 중앙당 조직과 각 의원실 보좌진을 총 동원, 호남 선거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광주서갑 전략공천 ‘뜨거운 감자’

“여성 배려 명분 부족” 내부 반발...내일 최종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6·13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공천 방침을 놓고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전략공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상대 후보 측에서의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일단 추미애 대표는 여성 배려를 명분으로 광주 서구 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고 박해자 전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는 18일 서구 갑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려 했으나 추미애 대표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참, 관련 논의는 보류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최고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두 차례나 같은 인사에게 전략공천을 주는 것에 강한 이의를 표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은 “서구 갑을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하기에는 명분

이 약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당내 86세대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 당헌에는 공직 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 추 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서구 갑 전략공천 문제는 오는 20일 열리는 최고위에서 최종 논의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공회전 국회

고심 깊은 與

개헌·추경 등 현안 산적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한 층 더 멀어지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드루킹 사태 특검 도입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파행을 풀기할 수단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고 23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개헌이 무산된다고 호소하면서 일단 개헌을 고리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개헌 의지가 있다면 주중으로 법 처리에 나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헌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추경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야당과 공조해 개헌이 가능한 상임위원회부터 추경 심사에 착수 하자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

바른미래 광역단체장 심사 착수

내일 1차 결과 발표...22일까지 기초단체장 면접

바른미래당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들에게 면접심사를 시작으로 공천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희망자 14명이 한 사람씩 들어가 약 15분간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심사 첫 대상자는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다. 서울에는 안철수·오현민·장진영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가나다’ 순에 따라 가장 먼저 입장한 안 후보는 “반드시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서, 지난 대선 때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59%의 국민과, 정부의 독주에 견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국민, 7년간 서울시장에 변화가 없음을 답답해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면접을 마친 후 “선거에 왜 출마했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선거에 임하는 각오 등을 (공관위원들이) 다양하게 질문해서 성실하게 답했다”고 전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장 안에서는 심심치 않게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면접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에서 진행돼 후보 간 팽팽한 긴장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장진영 후보는 안 후보와의 경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 후보는 면접 후 “(경선을 왜 요구하느냐는 공관위원 질문에) 경선으로 주목을 끄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반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이) 흥행이 되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안 후보 혼자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 별로 기대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이어 부산 이성권, 인천시장 정대유·이수봉, 대전 남종희, 울산 이영희·박종식, 충북 신용환, 충남 김용필, 경북 박재용, 경남 김유근, 제주 장성철 예비후보도 차례로 면접심사에 참여했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 아직 후보가 없어 면접이 실시되지 않았다.

공관위는 오는 2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희망자와 일부 기초단체장에 이어 22일까지 나머지 기초단체장 후보 면접을 마칠 예정이다.

공관위는 이르면 20일 서울시장을 비롯한 후보자 공천 심사 결과를 1차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3당 개헌논의 재개 촉구

“국회 밤낮없이 돌아가야” 민주·한국당 압박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으로 구성된 ‘야 3당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는 18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개헌성사 촉구대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멈춰버린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재개 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 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간사 의원 등은 저마다 “야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 “개헌성사 TV 플랫폼으로 실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은 국민의 관심사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여당과 제 1야당 한국당에 잡혀 전혀 전진을 안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다당제가 시대정신을 인정하고 적극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여당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게 촛불 시민의 명령임을 알고 권력구조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에도 국회가 멈추도록 해선 안 된다”며 “2018년 국회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책무인 개헌을 (국회가) 끌어내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우리 3당이 공동으로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국회를 밤낮없이 돌려 ‘국회 표 개헌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집권 여당(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를 뛰어넘어 조정의 정치,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천막농성에 돌입한 한국당을 향해 “당장 천막을 걷으라”면서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텐트가 아니라 (협상)테이블”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